

9. 21世紀 共同體 生活文化育成을 위한 다학제적 方案摸索 學術심포지엄(Ⅲ)

資料提供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삼성건설(주)

지난 6월 28일 신라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소장 : 문수재)와 삼성건설(주)(대표 : 최훈)의 공동주최로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방안모색 학술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날의 주제발표내용을 4차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중요성과 미래 주택단지를 통한 육성방안

박 경 자(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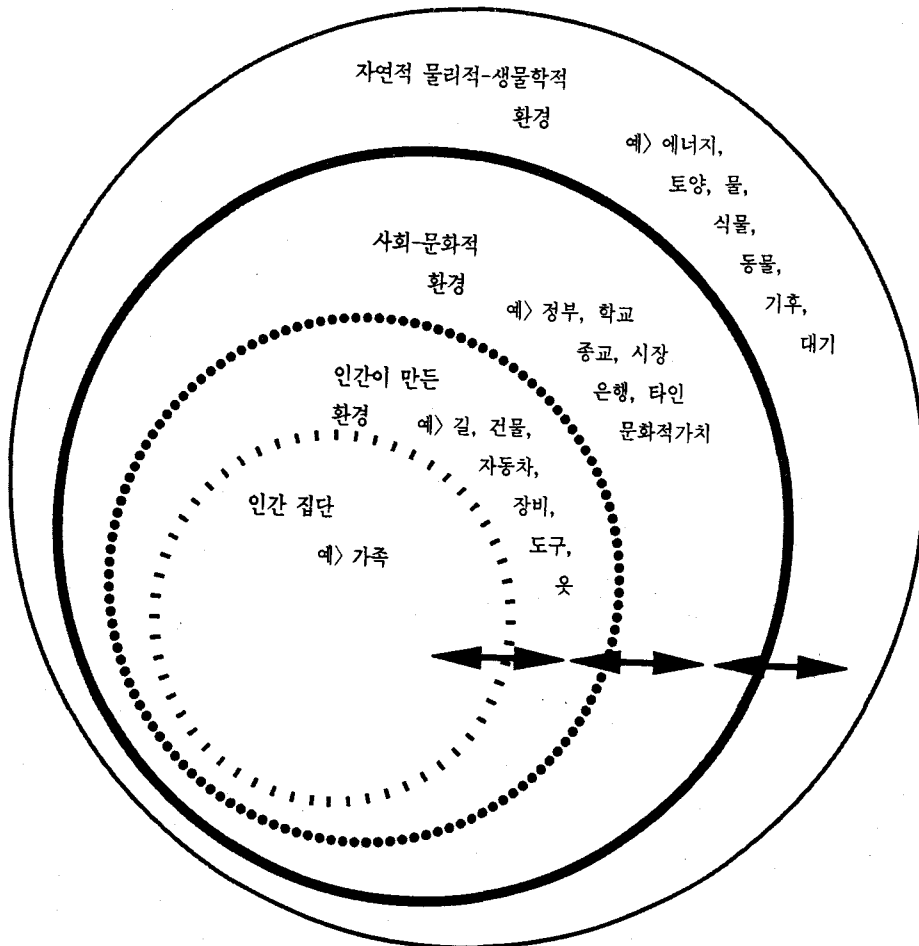
1.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중요성

본인은 본 심포지움에서 가족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의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영, 유아 및 국민학교 아동을 위한 탁아시설을 마련하여 줄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내에, 특히 주거 단지내의 공유공간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로서 지원시설이 있는 것은 아동 및 가족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대별하면 개인이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유전적인 측면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분류된다. 개인의 유전적, 생득

적인 측면과 환경적, 후천적 요인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수십년간 아동 발달에서 중요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중 아동의 발달에 있어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연구되어 왔다.

〈그림 1〉 인간 생태계



Bronfenbrenner는 인간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다학제적 관점에 입각하여 인간발달 연구에 있어서의 생태학적 접근법을 소개(이 영역, 1992)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으로 아동발달을 연구해 왔던 학자들과는 상이하게, 환경을 아동을 둘러싼 즉

각적인 상황, 즉 개인이 반응하는 대상이나 그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초월하는 훨씬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개인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그리고 거시체계로 구분되는 하나의 겹구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Bubolz(1994)는 가족과 가족생태계, 그리고 전체 생태계와 이들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여기에서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족은 미시생태계(micro ecosystem)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가족 생태계는 지역사회, 사회적 그리고 전반적인 인간의 생태계, 즉 거시체계(macro ecosystem)를 이루는 일련의 체계 중의 하나이며, 이들은 상호 의존하며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가족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생물학적, 사회적-문화적, 그리고 인간이 만든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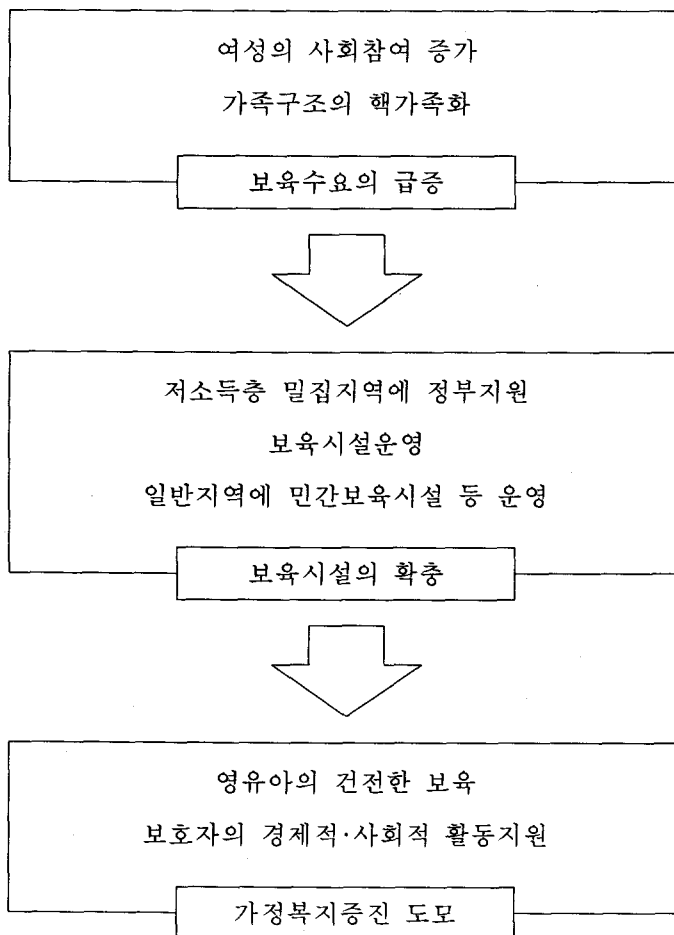
환경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지는 않지만, 가족에게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사회적, 도덕적, 지적, 심미적, 그리고 물질적, 물리적 환경의 질이 모두 인간발달과 복지에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현대사회에서 아동 발달 및 가족의 복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아동을 위한 보호 및 보육체계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되고 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주로 어머니와 확대가족에서의 가족구성원(할머니 등)으로 자녀의 양육 및 사회화가 핵가족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로 인해 부모 및 가족 이외의 대리양육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자녀양육도 점차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웃, 사회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족 형태와 사회의 변화 외에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이 남다르고 자식 농사를 으뜸으로 여겨 온 문화적 측면이 더해져서 부모 특히 취업모는 더 많은 심리적, 육체적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0). 따라서 가정을 위한 지원체제의 일환으로서 이들의 요구에 맞는 탁아 프로그램 및 발전적인 운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단순히 아동을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고 이와 더불어 가정의 역할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탁아기관이 요구되고 있다. 즉, 따뜻한 점심, 휴식, 건강, 친밀한 인간관계 등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아동양육 및 사회화의 많은 부분을 탁아기관에서 담당해 줄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가 사회적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 보육시설 및 가정 보육시설의 수도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인력(25-34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약 56만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해 영·유아 조기교육차원에서 보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95-'97년에 걸친 영·유아 탁아사업 확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보건사회부(1994)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보육사업추진의 기본방향, 보건사회부

정부는 정부지원으로 보육해야 할 대상아동을 65만명(우리나라 전체 보육수요 추계 : 약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위해 95년부터 향후 3년(95년-97년) 동안 1조 3천억 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요보호 대상아동의 수탁율을 30%(94년)에서 95%(97년)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였다.

또한 정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기타시설의 대폭 확산을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계획하였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을 현재 6,088개소에서 97년까지 13,678개소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표 1 참조).

〈표 1〉 보육시설 확대 계획안(정부안)

	'94	'95	'96	'97	신설(95~97)
보육시설(개소)	6,088	8,334	11,030	13,678	7,590
국고지원시설	1,651	2,651	3,701	4,801	3,150
민간기타시설	4,437	5,683	7,329	8,877	4,440
보육수용능력(천명)	192	342	464	619	427
국고지원시설	126	170	220	275	150
민간기타시설	66	172	244	344	277

아침마다 취학전 자녀를 탁아소, 유치원 등에 보내기 위해, 국민학교 취학 자녀들의 경우에는 방과후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외학원에 보내게 됨에 따라 부모들은 시간적, 심리적, 경제적 긴장 상태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끼리 서로 연결하여, 자신들의 주거지 내에 아동을 위한 보호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미시체계에서 거시체계까지 한 공간안에 위치함으로써 여러 곳의 중재가 가능하고 각 체계간에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어서 아동과 부모 등 가족 모두에게 발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onfenbrenner(1992)에 의하면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은, 그 환경과 다른 환경 간에 존재하는 지원적 연결의 수에 따라 증가된다. 또한 환경이 발달하는 어린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동이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온 사람들과 함께 지원적 연결을 구성할 때,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상황의 구성원과 함께 공동

활동을 할 때 (어머니와 선생님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아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때) 증진된다. 이와 같은 연결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개인의 그 환경에서의 사회경험과 능력감에 반비례하여 변화하므로 어린 아동, 소수 집단, 환자, 노인 등에게 최대의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가정과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간의 어떤 상호연결 형태의 특성을 가진 환경에서 성장할 때 더욱 잘 발달할 수 있다. 또한 그 체계의 구성원들이 모두 서로 함께 공동 활동에 참여할 때 환경이 주는 발달적 잠재력이 향상된다.

형제자매가 없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이웃간의 왕래가 없는 요즈음의 사회적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한 공간 내에 여러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함에 따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회적, 정서적 이미지를 아동 뿐 아니라 부모, 그리고 노인들에게도 다시 찾아줄 수 있을 것이며 지역 공동체 의식의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아파트 단지내에 주민을 위한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아동 및 가족을 위한 탁아시설을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종일제 탁아를 제공해 주는 시설과,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내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놀이공간(play space)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2. 주택단지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아동을 위한 보호프로그램

1) 탁아 프로그램의 종류

우리가 지역사회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을 맡아 돌보아줄 수 있는 기관은 여러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만나질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유아원, 4-6세를 대상으로 만나질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유치원, 취업모의 자녀를 주로 대상으로 하여 하루종일 운영하는 탁아기관이 그것이다.

과거에는 영유아를 ‘돌보아준다’는 개념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기관의 특징이 구분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적인 면을 특별히 강조하면 유아원,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교육보다도 보호적인 면을 강조하면 탁아기관으로 간주되었다. 이 두 기관은 각기 이용자도 구분이 되어, 중류계층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어머니들은 교

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유아원, 유치원에 보내었고, 취업모들은 하루종일 유아를 맡겨야 하는 이유로 인해 탁아기관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때의 탁아기관은 주로 저소득층의 유아를 대상으로 취업모를 대신하여 단순히 유아를 맡아서 안전하게 돌보아 주는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곳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아를 위한 기관의 유형을 단순히 교육이나 보육으로 양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해지고 있다. 취업모들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계층에 관계없이 탁아기관을 필요로 하는 요즈음은 ‘질적탁아(quality day care)’ 또는 ‘발달적 탁아(developmental day care)’라 하여 교육(education)과 보호(care)의 기능을 통합한 보육(educare)을 원하게 되었다.

아동을 돌보아주는 형태는 다양하여 그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가기전 또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수업 전·후 탁아, 아동의 집에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자기집 탁아(in home care), 기관의 감독 하에 개인의 가정에서 소수의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가정탁아, 가정탁아와 기관탁아 절충적인 형태인 가정 집단탁아, 일정 시간동안 정규적으로 돌보아 주는 시설탁아(day care center)가 있다.

그 외에 부모가 중심이 되어 비영리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부모협동 탁아/유아원, 부모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시간만큼 부정기적으로 유아를 돌보아주는 시간제 탁아 프로그램, 각 직장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의 차원에서 직장안에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직장밖에서 근무자들의 사택이나 통근버스가 다니는 곳에 위치하여 운영하는 직장탁아가 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공유공간을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는 아동을 위한 시설들의 몇가지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종일제 탁아

1980년대 이후 사회 경제적, 인구 통계학적 변화경향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종일제 프로그램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종일제 탁아 프로그램은 아동의 신체적, 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며 2시간 반~3시간의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반일제 프로그램에 비해 3시간 이상의 교육 활동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때, 종일제 프로그

램이란 대상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어머니의 취업에 관계없이 보호와 교육이 장시간 필요한 유아를 위하여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종일제 프로그램이란 취업모의 전유물이 아니며 취업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를 위한 전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일제 탁아 프로그램은 단순히 유아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어서는 안되며 더더욱 반일제 프로그램을 오후에 반복하는 프로그램도 아니다. 종일제 탁아 프로그램은 종합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어야 하기 때문에 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연령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과 물적 인적 환경을 연구하고 탐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이기숙, 1990).

(2) 시간제 탁아

시간제 탁아 프로그램은 규칙적으로 아동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만큼 유아를 돌보아 주는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단시간 동안 자녀를 맡아 줄 곳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한다.

현대사회가 다양해지고 핵가족화되면서 주부가 잠시동안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마땅히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 또한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 등 근무시간이 다양해지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자녀를 맡기기 보다는 근무시간의 조절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탁아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자녀를 규칙적으로 종일제 탁아기관에 자녀를 맡기거나 아니면 탁아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만 양육하는 경우 자녀를 단기간 동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3) 놀이방

아주 어린 유아를 제외하고 2세 정도만 되어도 또래친구들을 좋아하고 발달 단계상 또래와 어울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걸음마 시기의 유아들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또래와 상호작용해야 하고 환경 및 놀이감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

어머니들이 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주변의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를 갖지 못한 유아들은 특별히 자기 위주가 되기 쉽고 어머니 자신도 유아의 욕구를 지나치게 들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다. 그럴 경우 또래집단 속에서 친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유아가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놀이집단, 유아원, 탁아 경험이 없는 유아들은 또래와 상호작용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자주 이웃에 있는 아기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부모가 외출하기 위해 아동을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적절하고 충분한 놀이감이 제공되는 곳에서 부모가 아동과 함께 놀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취학전 아동과 부모를 위해 유용하다.

또한 유아들은 왕성한 호기심과 탐색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우선 가정 환경을 모두 유아에게 개방할 수도 없고 모든 가정 환경이 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이 되지도 못하므로 불가피하게 통제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들의 탐색과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안전하고 계획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놀이방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놀이방 운영은 단순 놀이방과 구조화된 놀이방의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순 놀이방은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방문하여 실내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놀이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다. 아버지들도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유아를 데리고 방문하여 놀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구조화된 놀이방은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방문하여 발달상으로 적절한 놀이감이 제공된 환경에서 자유롭게 탐색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이다. 부모들은 유아들과 함께 방문하여 여러 발달 단계에 있는 유아를 관찰할 수 있고 다른 부모들과 대화할 수 있고 집에서 어떻게 유아와 함께 놀 수 있을지를 배우며 부모 역할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은 자신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과 활동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와 유아가 같이 놀이하는 프로그램등이 제공되기도 하나,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유아의 거주지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상에 제한을 주게 된다.

(4) 방과후 탁아

이제까지는 주로 영유아에 초점을 맞춰서 탁아에 대한 연구를 해 왔지만 이제는 이들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호와 지도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한국어린이보호회(1992)가 국내대도시 지역의 학령기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

면 국민학교 어린이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방과후에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고 있다.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동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후에 겪게 되는 부적응의 문제가 대두되면서(이 옥, 1993; Long&Long, 1981), 영유아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에게도 보호 및 양질의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배려가 국가적, 기업적으로 필요로 되고 있다.

2) 아파트 단지내 아동보호 시설의 공간 조직

유아기 및 아동기는 외부의 환경적 조건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특히 어린 아동을 수용하는 기관의 시설 및 설비는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좋은 물리적 환경은 아동에게 있어 필수적이며, 각종시설, 설비의 질적인 측면과 더불어 아동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요구된다(이성진 외, 1990).

아파트 단지내에 아동 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위치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배치에 따라, 즉 판상형 아파트 단지인지, 타워형 아파트 인지, 그리고 한 건물과 건물 간의 연결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아동을 위한 시설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주민들에게 아동용 탁아시설을 단지내에 설치할 경우 어디에 위치하기를 원하는가를 질문한 이 연속(1995)의 연구에 의하면, 주민들은 판상형이나 타워형 아파트의 경우 모두 아파트의 1층에 아동을 위한 탁아시설과 놀이방이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워형 아파트 2개가 연결되는 아파트 배치에서는 2개 아파트의 연결 공간 중 지상 1층, 선큰가든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3. 맺음말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자녀양육방식도 급격히 변화하여, 과거에는 자녀가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성인의 수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한두명의 부모에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또한 한 가족내에서 자녀 수의 감소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족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야 동일한 거주지역에 사는 주민들 간에, 이웃의식과 지역사회의를 고취시킴으로써, ‘내가족’에서 ‘이웃’으로 우리의 관심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서 본 고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의 일환으로서,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제공할 수 있는 아동 보호시설의 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모형에는 영유아 부터 국민학교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이들을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영유아를 위한 종일제 및 시간제 탁아시설과, 국민학생을 위한 방과 후 탁아시설,,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놀이방 시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주거 환경내에 통합하여 제공해 주는 것은, 아동 및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을 서로 연결하여 줌으로서 아동 발달 및 가족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통난이 심각한 곳에서는 아침마다 자녀를 맡기기 위해 가정-탁아기관-직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가정-직장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교통소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취업부모를 위한 지원체계로서 직장탁아도 하나의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혼잡한 교통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국민학교 연령의 아동들, 특히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탁아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 수의 부모들이 이들을 위한 탁아의 대안으로 여러 종류의 학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어린 아동들이 혼자 집이나 길거리에 방치하게 되는 현재 상태에서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하면, 부모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아동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다.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체계에 속하는 국가정책 및 지역 사회, 회사의 정책은 인간의 생활여건을 결정함으로써 인간의 복지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 세대들의 환경과 성격을 특징짓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정책은 미래에 우리가 지향하는 시민상, 가족 생활, 사회적 상에 입각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청소년,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중요성과 미래주택단지를 통한 육성방안

손 승 영(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는 글

한국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사회 구조와 제도상에 있어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매우 빠른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도는 소위 신세대라고 불리우는 청소년층에서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년층의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의 변화들을 다방면에서 감지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온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받은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산업화에 따른 영향은 지대하였다. 경제발전은 각 가정에 교육수준과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고 경제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가족성원들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서 소비나 여가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여서 나타나고 있다. 소비의 필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소득증대 욕구는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로 연결되어서 맞벌이가정의 증가가 90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식주는 물론 육아까지도 사회화, 상품화로 이어지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요청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는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켰으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편의주의만을 추구하는 풍토도 조성됨과 동시에 과거에 비해서 개인주의적 성향도 강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 중심의 생활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일 중심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사적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비록 우리사회에서 가부장적 전통이 어느 정도 약화되고 남녀간의 차이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지만, 세대간의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그 변화가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집단간 차이를 강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남녀역할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어떤 집단들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다른 집단들은 보수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집단간의 차이로 볼 수 있는 남녀역할에 대한 상이한 태도나 입장은 더 많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세대간, 성별갈등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우리사회나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삶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위에서 언급한 갈등들의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필요한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는 미래 주택단지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육성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하겠다.

2. 한국가족의 변화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아직까지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중심적 사고나 가치를 우선시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서구사회에 비해서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중심적 가치나 행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1994).

이는 가족관계가 중시되고 ‘가족의 체면을 위해서’ 또는 ‘집안의 명예를 걸고’라는 말들이 지금도 공공연히 사용되는 데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족 우위의 정책을 펴는 한편, 가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가족에 많은 해결을 맡기고 있는 ‘선 가족, 후 복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사회에서는 강하게 뿌리박혀 있으므로, ‘가족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굳히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인간은 가족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를 보살피며 아낀다는 혈연을 기반으로한 ‘자연스러운 가족’에 대한 믿음을 한편으로 강화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족상호간에 작용하는 기대치가 커서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혜택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가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노부모와 따로 사는 문화의 확산, 이

혼의 증가. 독신자와 미혼모의 증대 등(함인회, 1993)은 모두 가족이 급속히 변화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지표들로서 자연스러운 가족에 대한 신화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존속살해에 관한 통계는 '위기에 서있는 현대가족'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우리의 가족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게끔 한다.

그러면, 가족중심적 사회에서 가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과거에는 우리의 강한 가족주의적 사회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며 사회의 통합기제로도 작용하였다(이효재, 1985; 조혜정, 1985). 가족 중심의 생각들이 가정 내 통합을 이루며 사회의 발전과도 연결이 되어서 '도덕적 가족주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산업이 발전하고 개인의 가치관이 점점 다양해짐과 아울러 나타난 현상은 나의 가족만을 아는 가족이기주의의 팽배여서 지금은 가족주의가 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로도 발전하여서 가족의 '반사회적' 성격(바렛, 1994)이 증대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가족 내에서도 세대간의 갈등이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하게 나타나므로 부모와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 내외부 모두에서 문제들이 산적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개인의 개성추구 현상이라든가 자아실현 등 '개인적 합리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서의 변화'라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업주의의 팽배,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 쾌락의 추구 등과 관련된 가족과 개인의 변화는 가족이기주의와 합쳐져서 역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집단적 합리성이 무너진 과정'으로의 설명(Kim, 1990)도 간과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가족이 자신들만의 경제적 풍요와 안이함,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기주의적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기주의와 이윤추구 논리의 팽배는 가족 내부에서도 통합적인 기제로 사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가족성원들간의 이해나 차이의 확대로 가족성원의 개별화현상을 증대시키고 있어서 가족 내외부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손승영, 1995). '정서적 이산가족 상태'에 놓여있는 한국가족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성원의 개성 강조가 가족 내에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성원의 개별화현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는 가정에서의 아버지 부재현상, 청소년의 탈선, 이혼시에 부모 양쪽 모두가 자녀 양육을 거부하는 현상의 증대 등을 들 수 있

다.

이상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과거와 같이 강한 공동체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가족중심주의 이데올로기로 표면적으로는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족성원간의 질적 관계를 향상시킬 정도의 내적 통합 기제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때로는 가족이 개인적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개별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각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음을 절감하게 된다. 이에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가족보다 범주를 넓혀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관계를 공고히할 수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하여 공동체의 확립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성원의 연령이나, 성별, 결혼상태별로 달리 나타나는 각 집단의 새로운 요구들을 반영하면서도 가족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할 것이다.

3. 지원체계의 필요성

비록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은 축소되고 있지만 개별 가족에 대한 기대치는 오히려 커져서 한 가족이 지고 있는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실정이다. 또한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만이 성공하거나 출세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족이기주의가 만연해 있기도 하며, 동시에 가족성원간에도 과잉 기대로 인하여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개별화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또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는 맞벌이가족의 증대와 소규모 자녀화하는 경향을 고려할때 지역사회를 활성화하여서 개별 가족의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주목하게 된다. 현대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현상을 자본주의화와 상업화에 맡겨둔채 타율적으로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가족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족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개별 가족이 혼자 힘만으로 대응하기 힘든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도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사회적으로 함께 대응할 때 효율적으로 가족생활의 개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 이웃과 사회와 함께 다양한 연대를 마련하여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개별 가족의 성장도 가져오는 상호 유

기적인 관계에서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주민들간의 상호 협동에 바탕을 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생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으며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회복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가 판치는 기존의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가족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새로운 이웃사촌을 맺어서 보다 자율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핵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가 돕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가족성원간의 관계 향상도 아울러 꾀할 수 있다. 또한 이에 걸맞게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정립이 필요하다.

가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이루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족이 다시금 통합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공공히해줄 지원체계의 확립에 기대를 걸게 된다. 개인의 자유의사와 개성 존중이라는 합의에 기반을 둔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세대간, 연령간, 성별 의사소통을 원활히함과 동시에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고려할때 도시생활의 상업화된 측면들을 줄이고 바쁜 도회지 생활에서도 이웃간의 유대를 돈독히하면서 건강한 공동체적 삶은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사회 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켜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과 격차를 줄이고, 남녀 모두에게서 가정이 일터와 쉽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개개인의 다양한 삶을 대한 관심을 인정하고, 사회참여와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에 주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개인의 관심과 생활양식들을 반영한 21세기를 대비한 주거 모델의 정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새로운 주거모델의 가족형태의 변화를 감안하여서 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자칫 개별화되기 쉬운 관계를 통합하는 노력도 동시에 시도함으로써 보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위해서는 점차로 축소되거나 개별화되고 있는 가족에게만 부담을 떠넘기거나 기대를 걸기보다는 지역사회와 가족이 공동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서 여러 가족들이 함께 책임을 질 때 개별가족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며, 가족생활에

서의 정서적 만족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서 지역사회와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가족내에서 보이는 세대간의 차이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원체계 육성 방안

지역사회 지원체계 활용방안 개발의 주 목적은 가족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서 새로운 주거 모델에 적합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족성원 각자의 세대별, 성별 및 가족간의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기존의 가족에서 보이는 이기적이고 개별화되고 있는 성향을 지양함과 동시에 협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하고자 한다. 본 토의에서는 청소년, 성인 여성, 성인 남성, 노인의 네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서 지원체계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

모든 집단에게 있어서 정서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에게는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성의 경우는 봉사활동의 기회와 돈벌이 기회를 공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각 집단이 필요로 하는 주된 특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요약하면 <표 1>에서 제시되어진 바와 같다.

<표 1> 대상 및 내용

	주요 프로그램의 성격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노동서비스
청소년	상담 여가	교육강좌 성교육	아르바이트	급식
남성	여가	교양강좌	취업, 아르바이트	
여성	여가	교양강좌		
노인	상담	노인학교	아르바이트	급식, 의료
	여가	교양강좌		허드레일

다음으로는 지원체계 프로그램을 그 필요성과 내용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외에도 재수생이나 근로청소년, 무직청소년 등 매우 다양한 특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여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1) 필요성

한국의 청소년들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영상매체의 개발 등 성인에 비해서도 더 많은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상업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오락물들이 학교나 학원, 가정을 포함해 생활주변 환경에서 판을 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관심과는 달리 입시에만 치중해서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결과 자녀들에게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한국가정은 자녀의 전인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상태에 있으며, 자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에 들어가서 집안의 체면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자신들이 점점 도구화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왜곡된 자녀관에서 벗어나고 청소년들이 보다 즐겁고 생산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가족간의 협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때, 청소년의 비행이 일어날 여지를 줄일 수 있음과 동시에, 건전한 여가를 육성하여서 건전한 또래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첫째, 확고한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기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므로 이를 줄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송강성 외, 1991).

셋째, 비행을 줄일 수 있도록 건전한 여가를 육성하고 부모와의 대화를 늘려야 한다.

넷째, 성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 언급한 네 가지 제언사항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서 현재의 학교성적 위주의 경쟁풍토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전인교육에 대한 관심과 친구, 형제, 가족과의 협동 정신 함양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청소년간의 협동적인 또래 집단을 형성할 때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3) 운영 방안

① 프로그램의 종류

-공부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독서실, 글방, 공부방 등을 색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청소년의 문화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방법

비디오 관람 및 토론, 독서 및 토론, 레크레이션, 게임 문화교실, 과학교실, 과학경진대회, 장기자랑 대회.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 급식, 상담

-성교육

② 운영방안

학부모들의 봉사로 청소년 상담 및 취미활동을 권장한다. 자치회비로 구성하되 취미를 가르치는 주민에게는 약간의 봉사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의 취미활동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학교육, 컴퓨터 강좌, 붓글씨, 미술, 악기다루기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2) 성인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1) 필요성

여성의 취업율 증대로 인하여 여성들의 수입이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나 또는 가계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율 증대는 특히 기혼여성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농가에서의 여성 취업율이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이나 형태도 다양화되어서 여성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2) 내용

- ① 여성의 일을 돕는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
- ②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③ 사회참여 기회의 마련 : 소비자 문제, 생협운동, 교육, 건강, 환경 운동에의 참여
- ④ 경제적 기회의 마련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들이 활발해지면 주민의 자치조직이 성립되고 필요한 주민의 자치회비로 운영이 가능하다. 탁아나 급식 등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이 요구된다. 가정주부의 경우 시간제 취업이 가능해지므로 경제적으로도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은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이기도 하면서 운영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3) 운영 방안

- ① 공동 식생활, 생산·소비 공동체
- ② 공동 자녀양육

놀이방과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실비로 공동 운영하여서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의 다양화를 꾀함과 동시에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의 질적 수준을 도모한다.

③ 인력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취업기회 : 전업체 또는 시간제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공동 가내부업 : 희망자들을 선전하여서 공동의 작업을 한다.

-봉사 차원 :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여서 아파트 내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한다.

-지역봉사 : 상담원, 고아원, 양노원 등 방문.

④ 여성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독서방, 토론방, 음악 감상실, 비디오 감상실, 운동프로그램, 취미교실 등을 여성들의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하여서 마련한다.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취미교실에서의 강좌 마련과 취미방 조성은 주민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주민들 중에서 강사를 선정하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둔다. 또한 여성들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의 강의와 PC 통신접근법 등은 자녀와의 합반을 마련함으로써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로 고려한다.

3) 성인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1) 필요성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은 성별 분업에 의해서 가정에서의 역할은 전무한 반면에 직장일 때문에 과중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가정과, 이웃, 지역사회에서는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한편, 직장에서는 과다 업무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인 남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남성의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의 소외를 줄이는 방안과 아울러 직장에서의 과다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내용

① 가정과 지역사회에의 통합

남성들은 직장에서 근무를 끝낸 후에 직장 동료와 함께 밖에서 지내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또는 이웃과 함께 하는 여가와 휴식시간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과다한 업무에서의 해방

아버지의 아버지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인간실현 학부모 연대'나 '참교육 학부모회'의 강사를 초빙하여서 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들이 '촌지 보내지 않기 운동'을 펼치는 등 여성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운영방안

① 자녀교육 : 촌지 안보내기

② 자녀양육 : 자녀와 함께 게임, 바둑교실, 컴퓨터 등.

③ 남성의 여가 : 독서방, 토론방, 음악 감상실, 비디오 감상실, 운동 프로그램, 취미교실 : 강좌 마련 및 취미방 조성

좋은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하여서 그들의 경험을 듣고 또한 그들에게서 도움을 청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보할 수 있다.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주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강사를 선정하여서 계획을 짜도록 한다.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중심으로 남성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4)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1) 필요성

한국은 사회복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가족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오늘날과 같이 맞벌이 부부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부모 부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공동생활의 측면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서 독립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혜택에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2) 내용

- ① 노인을 위한 강좌 마련 :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
- ②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마련
- ③ 재가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 ④ 노인을 위한 상담
- ⑤ 노인을 위한 취업기회의 제공

(3) 운영 방안

- ① 의료서비스 : 정기검진, 요양환자, 치매노인을 위한 대책 같은 처지에 놓인 가족들이 위기시에 상호 대처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하여서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② 복지서비스 : 급식과 노인들 스스로의 공동취사 공간 마련, 상담
- ③ 여가 : 독서방, 토론방, 텔레비전 시청실, 노인교실
- ④ 취업기회의 확대방안 모색 : 단지 내부 및 외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 공동으로 모여서 노령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의논하고 수혜 대상 가족들이 모여서 각자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서 공동 운영방안을 작성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건강이 좋은 젊은 노인들도 자원봉사자로 포함시켜서 노인들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5) 통합적 프로그램

(1) 필요성

우리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세대간의 격차가 커져서 가족간의 통합이나 협력이 어렵게 되고 개별화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가족이기주의의 고조로 인한 인본주의적 가치관의 붕괴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우려를 감안하여서 보다 공동체적인 삶을 지양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세대간의 통합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2) 내용

- ① 부모와 자녀 프로그램 : 교양 강좌, 대화시간, 오락, 여행
- ② 조부모와 손자녀 프로그램
 붓글씨 쓰기, 이야기 시간, 만들기 시간, 오락
- ③ 가족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
 오락, 장기자랑, 체육대회, 공동 파티, 일일 장터

(3) 통합적 운영 방안

- ① 부모와 자녀 프로그램
 함께 배우기, 함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부모와 자녀간의 가치관의 차이나 관심의 차이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② 조부모와 손자녀 프로그램
 노인들이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음 기회에는 어린이들이 노인들에게 장기자랑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붓글씨 방, 바둑교실 등, 노인들이 운영하고 주 대상자들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한다.
- ③ 가족 전체 프로그램(2-세대와 3-세대 공동 프로그램)

가족대항 체육대회, 공동 식사의 날(한 집씩 마련해서 주민 파티), 가족 대항 노래자랑, 베드민턴, 홀라후프 시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서 공동체 생활의 즐거움을 창출해 나간다.

건전한 여가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조기 체조, 산책, 조깅 등을 함께 하는 모임을 형성하고 아파트 주변의 공터를 개발하여서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야채를 키울 수 있도록 하여서 바쁜 도시민들에게 여가의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자연에 무관심한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좋은 휴식 공간이 됨과 동시에 야채를 가꿈으로써 농촌의 생활을 이해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핵가족의 병폐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한울타리가족’, ‘한아파트가족’ 등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조부모와 살고 있지 않은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단지 내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세대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웃과의 공동 활동을 늘일 수 있도록 놀이방, 비디오방, 독서방, 게임방, 노인정 등의 공동 시설을 마련하고 세대별이나, 성별, 직업별, 관심분야별로 이익집단을 활성화할때 지역주민들은 공동의 이익을 찾게되어 개별화된 생활양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주요한 변화들을 감안하여서,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이웃과의 유대 강화라는 점에서 살펴 보았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우리사회의 교육문제,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공동의 힘으로 가족 성원간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운동, 지역 연대운동에서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형태와 변화의 방향들을 감안하여서 공동체적 연대의식에 기반을 둔 주민공유공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혈연가족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문화형성은 소비중심의 이기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서 공동참여의 즐거움과 창조적인 여가문화를 형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가족이 다양한 모임과 실천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의식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도 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의 질적 변화와 아울러 가족 성원의 역할구조와 의식주의 소비생활과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간의 일체감을 기대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웃한 가족들간의 더불어 살기 운동은 진정한 '이웃사촌' 시대를 가능케 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건전한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 아파트단지의 효율적인 사회체육시설 설치와 운영방안

장 경 호(명지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1. 서론

사회체육의 참여는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체육의 참여는 개개인의 신체적인 건강증진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혹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전종귀, 1991). 이러한 가치평가는 체육활동은 우리사회 전반에 홍보되고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정기적인 체육활동은 학생들이나 체육인들만이 시행한다는 고정관념은 사라지고 남녀노소의 구분없이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한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시간을 만들어 운동을 한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운동에 여성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운동회나 야유회만이 유일한 운동의 기회였던 소시민들이 연일 체육관과 운동장을 가득 메우는 시기가 된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에 관한 적극적인 사고

는 그간 우리사회에 부족했던 체육공간과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욕구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체육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거지역내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주택건설기준 제53조). 그 결과 신도시의 아파트단지나 재건축단지에도 주민복리를 위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구청 단위에 생활체육과가 설치되어 구민들의 체육참여욕구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인 복리기준들은 주민들의 체육참여욕구를 해소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그것은 현재 주거지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구조물의 물리적인 확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YMCA, 1989). 이용객없이 텅비어있는 아파트의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 바로 그 실예가 될 수 있다. 방과 후에 몇몇의 중고등학생들이 농구시합을 한다며 공을 튀기거나, 새벽녘에 몇 분의 노인들이 배드민턴을 즐기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아파트의 이러한 체육시설은 텅비어있는 상태이다.

주거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농구장이 대부분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극히 드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코트의 경우, 대부분 경영권이 개인에게 양도되어 회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어려운 사설 테니스코트가 된 것이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단지내에 설치된 배드민턴장과 농구장, 혹은 다목적 운동장의 경우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의 이용은 자유롭지만,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즐길 수 있는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체육시설과 공간의 방치는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이다.

주거지역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주민의 관심이 없는 종목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물은 공유공간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시의 국민주택단지에 들어선 배드민턴장과 농구골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배드민턴과 농구는 사회체육종목으로 인기가 높지만, 참여대상자가 노인층과 중고등학생이라는 점이다. 과연 신도시의 국민주택규모에서 노인을 모시는 젊은부부가 몇세대일까? 또, 중고등학생을 지난 세대가 얼마나 있을까? 신도시의 배드민턴장과 농구대가 늘 비어있는 이유는 비인기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용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체육시설물은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이용가능시간, 직업의 형태, 연령, 성별, 그리고 취향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한양순&장경호, 1991). 더욱이, 주거지역의 체육시설물은 설치 이후에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과 주민들의 참여를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사설기관의 조합아파트나 합숙소, 혹은 사원아파트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의 경우, 더욱더 주민들의 요구(needs)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구잡이로 설치된 체육시설물들은 주민전체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민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경우, 다른 일반적인 주거지역보다 시설물의 효율성을 쉽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건과 욕구를 고려하여 단지내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의 체육참여 욕구는 적절한 시설물의 확충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해소 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체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물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참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체육참여는 공간확보가 되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간의 확보와 함께 이에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설이 있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들이 주어진 체육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할때, 효율적인 체육시설이 확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형 아파트단지에 설치되는 사회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주민공유공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본적인 체육시설의 종류, 사회체육센터의 연계가능성, 그리고 전문적인 사회체육지도자 확보 방안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2. 본론

1) 사회체육에 필요한 시설

사회체육에 필요한 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투자를 들인 체육시설물이라도 그 시설을 사용할 대상자들의 호응을 못 얻는다면, 그것은

체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시물이나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보잘것 없는 시설물이나 공간이라도 대상자들이 필요로하는 것이라면 그 시설물은 성공적인 사회체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운동장 구석이나 골목어귀에 작고 낮은 넷트를 쳐놓고 하루종일 족구를 하는 학생들을 본다. 그들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설물은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여가시간을 가치있게 보낼 수 있는 값진 시설물이 될 수 있다.

사회체육시설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공간과 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더 이상은 체육활동을 하는 계층이 '배부른 사람'이나 '고관대작'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건과 교육수준의 향상, 대중문화의 공동화, 그리고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스포츠 참여는 지역이나 계층을 떠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지고 있다. 단지 어떠한 종류의 운동을 하는가만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주민을 위한 사회체육시설물은 크게 사회체육센터와 주민공유공간으로써의 체육시설로 나눌 수 있다. 사회체육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로 나눌 수 있다. 사회체육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방하는 전문적인 체육시설로 일반적으로 단독적인 건물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주민공유공간으로서의 체육시설은 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되어있는 체육공간을 의미하며, 아직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체육센터는 아파트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체육센터의 개방은 지역주민들과 아파트주민들의 유대를 긴밀이할 수 있을 뿐아니라, 높은 가격의 시설물 설치비용과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큰 규모의 체육시설물을 운영할 경우, 아파트주민들의 자치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전문적인 관리인이나 지도자가 필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가의 시설비용이나 운영비용, 그리고 전문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스포츠종목은 사회체육센터에 집중시켜 지역주민들과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사회체육센터내에 설치되어야하는 스포츠 시설물로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많이드는 종목과 아파트내에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크게 소요되는 종목들이다. 그러한 종목으로는 실내수영장, 보울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센터 및 체력측정실, 스크린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등이 있다. 사회체육센터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대상자에 따른 체능단(예. 유아체능단, 장애인조기교육실)을 설치운영하기도 하며, 각각의 스포츠 종목에

따른 동호인모임이나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표 1)은 이연숙(1995)이 미래형 아파트에 입주예정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이 도표는 입주예정자들이 선택한 사회체육프로그램의 종류를 연령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1〉 대상자에 따른 사회체육프로그램의 종류

종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주부	장년(남자)
수영	○	○	○	○	○
롤러스케이트	×	○	○	×	×
보울링	×	×	○	○	○
에어로빅스	×	×	○	○	×
탁구	×	×	○	○	○
당구	×	×	○	×	○
태권도	×	○	○	×	×
실내테니스	×	×	○	○	○
실내골프	×	×	×	○	○

○ : 선호하는 종목 × : 선호하지 않는 종목

(표 1)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와 장년층을 위한 스포츠 종류가 많이 포함되어있는 반면,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스포츠 종목이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스포츠 종목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영유아를 위한 스포츠프로그램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개발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단지 유아들의 행동발달과 기초운동기능(fundamental motor skill)의 향상을 위하여 수영과 체조, 그리고 놀이를 적용한 유아체육프로그램을 사설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박길준 외 2, 1995).

유아들의 체육프로그램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은 기초운동기능의 향상과 감각기관과 연관된 운동기술(perceptual motor skill)이므로 다야안 놀이프로그램과 움직임교육(movement education)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권장되고 있다(Hendrick, 1991).

(표 1)에서는 나타나있지 않으나 청소년과 장년, 그리고 주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스포츠 종류로써 라켓볼을 추가할 수 있다. 라켓볼은 좁은 공간에서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는 저변확대가 되지 않아 고급 레저스포츠로 간주되지만, 적은 시설비와 유지비, 그리고 최소한의 장비로 즐길 수 있어 저변확대가 예견된다.

2) 주민공유공간을 위한 체육시설물

사회체육을 위한 시설물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될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수와 시설물에 대한 반응율을 높일 수 있게된다. 시설물의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사용시간, 사용자의 숫자, 시설사용비, 시설운영비, 그리고 아파트를 위한 선전효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은 시설물의 공간적인 배치, 운영프로그램의 종류와 개설시간, 인적자원의 확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단지내에 설치되는 사회체육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의 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설물을 사용하고자하는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해야하며, 이용자 이외의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 그리고 아파트 전체의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설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설치된 체육시설은 소음공해의 온상지가 될 수 있으며, 밀폐되고 외진 공간에 위치한 시설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실의 외진구석에 설치된 헬스장이나 라켓볼장을 아무런 부담없이 찾아 나설 수 있는 부녀자들은 없을 것이다.

(1) 실내시설물 설치의 주의점

탁구장의 배치 : 탁구장은 탁구대 3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탁구를 선호하는 연령층은 청소년층이므로 청소년을 위한 공유공간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일 수 있다.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통풍이 잘되어야하며 밝은 조명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으므로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복도쪽의 벽면을 투명유리 혹은 큰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라켓볼장의 배치 : 라켓볼은 최근 보급되고 있는 스포츠로서 10명 미만의 작은 실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경렬한 볼경기로서 남녀노소의 구별없이 참여가 가능하므로 옥내스포츠로서 권장되고 있다. 특히, 라켓볼은 아직까지 높은 사회계층에서 시행된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있어 저변확대가 미비한 시점이나, 시설비와 참여비용이 저렴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 되리라고 사료된다.

라켓볼장은 체육시설로서 비교적 적은 공간이므로 최소한 두개 이상이 설치되는 것이

좋다. 라켓볼장은 아직까지 대중에게 보급되지 않아 상류계층의 고급스포츠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라켓볼은 장비와 시설비, 그리고 운영비가 저렴하여 급속히 대중 스포츠로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라켓볼장이 아파트내에 설치된다면, 아파트의 복지시설을 외부에 적은 투자로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라켓볼장은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장소(1층)에 유리벽면을 이용하여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골프연습장의 배치 : 실내에 설치되는 골프연습장은 중년과 노년층의 남여가 선호하는 스포츠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물이나 넷트를 이용하는 재래식 연습장보다는 스크린으로 자신의 타구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린 골프는 설치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수익사업으로 권장할 만한 스포츠 종목이다.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음이 크므로 사회체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주거지역에 근접되어 있을 경우에는 방음시설이 요구된다.

실내테니스장의 배치 : 실내테니스장은 옥상이나 건물의 최고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고층의 천장을 부분적으로 유리와 같은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돛식의 테니스장을 꾸민다면, 조명을 밝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실내테니스코트는 하드코트로 만드는 것이 좋으며, 코트와 코트사이의 공간이 충분해야 한다. 코트 가운데에 설치되는 포스트와 심판대는 선수들의 충격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서리에 보호대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헬스센터는 주민들의 건강유지와 체력단련을 위한 기구들을 모아놓은 장소를 의미한다. 헬스센터에 설치되는 기구들은 근력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종합근력기계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드밀, 혹은 자전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에 이러한 기구들은 한자리에 모아놓은 별도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기구들을 쉽게 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탁구장이나 라켓볼장의 주변, 혹은 체육시설로 통하는 복도의 좁은 공간에 몇개의 기구를 설치해놓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파트 옥내에 설치되는 헬스센터는 체력단련기구를 종합해서 모아놓은 공간이 아니라, 그 기구들을 여러곳에 분산배치하여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헬스공간은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아파

트의 주민공유공간의 전역에 흩어져 설치되는 것이 그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체력단련을 위한 기구들이 일반적인 헬스센터와 같이 한 장소에 모여 있을 경우, 아파트에서는 그 이용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헬스센터에서 체력단련기구들을 한곳에 모아놓은 이유는 대상자들이 다른 종류의 운동을 같은 빌딩안에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영과 에어로빅스를 한 이후에 체력단련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은 전문적인 스포츠 시설이 아니므로 체력단련 기구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게되면 그 이용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1-2평 규모의 공간에 종합근력기 혹은 자전거 등의 기구를 배치해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라켓볼장이나 탁구장 그리고 암벽코스와 같은 체육시설 주변에 설치 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암벽등반코스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없이 천장높은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암벽등반코스는 최근에 레크레이션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한쪽벽면과 모서리에 벽돌이나 나무조각을 부착하여 인공적인 암벽코스를 만드는 것이다. 벽의 윗부분에 안전띠를 걸 수있는 구조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암벽등반코스는 청소년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물 주변에 설치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리라고 본다.

(2) 실외 시설물 설치의 주의점

테니스장은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의 기본이라고 간주되는 시설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야외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설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있으므로 크레이코트(진흙바닥)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크레이코트는 사용전후에 지면을 다져야하며, 매회 선을 그려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지면에서 무릎으로 오는 충격이 적으므로 부상율이 적다하여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테니스화(운동화)의 고급화로 지면충격을 극소화한 현시점에서는 ‘크레이코트가 부상을 예방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최근에는 케미컬코트(우레탄바닥)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케미컬코트는 시설비가 다소 비싸지만 바닥을 다지거나 새로운 선을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 테니스화의 고급화로 지면충격으로 인한 부상은 극소화되었고, 저렴한 관리비, 그리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케미컬코트 사용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조합아파트 단지내의 테니스장은 케미컬코트로 설치되

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니스장은 옥외체육시설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단지내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아파트의 정면이나 뒷쪽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측면에 설치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아파트의 방향은 남향이다. 남쪽(남향)을 향하여 지어진 아파트의 테니스 코트를 아파트 뒷쪽에 설치한다면 겨울철에는 그늘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아파트의 정면이나 뒷면에 테니스장이 설치되면 공을 치는 소리(소음)가 아파트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고층아파트가 나란히 서있는 단지 가운데나 혹은 남향아파트의 뒷면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테니스장은 가급적 아파트단지의 외곽쪽, 그리고 아파트 동의 측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울러코스의 배치 : 로울러코스는 청소년과 아동들이 즐기는 로울러 스케이트와 로울로브레이드, 그리고 로울러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한다. 이 로울러코스는 아파트의 외곽을 순환하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평면의 산책로를 구간구간에 걸쳐 원형으로된 평면공간, 경사면, 좁은 도로면 그리고 우회도로를 설치하여 로울러의 흥미를 높여야 한다. 특히, 산책로와 평행하여 설치되므로 위험성이 있는 로울러코스는 산책로에서부터 우회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드민턴/족구/배구장의 배치 : 배드민턴은 테니스보다는 소음이 많지 않다. 코트의 규모도 작고 넷트와 넷트고정대를 이동적으로 할 수 있어 관리도 쉬운 편이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배드민턴코트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 : 올림픽공원). 배드민턴코트가 주로 사용되는 시간은 새벽이므로 주차장 이용객이 적은 시간이므로 배드민턴코트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드민턴코트는 테니스코트 옆에 설치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교류를 정진시킬 뿐 아니라, 테니스코트가 사용되지 않는 이른 새벽에는 배드민턴 연습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드민턴장은 족구장과 배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드민턴포스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목적 포스트를 사용한다면, 배드민턴장은 족구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포스트를 낮고 높게 설치한다면, 배구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배드민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될 기본적인 시설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체육활동으로 참여인구가 가장 많은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노인들이 즐기는 아침운동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드민턴장을 실내에 특별한 체육공간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

다. 배드민턴장은 원래 옥내에 설치되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근래에는 폭증하는 참여인구와 실내공간 부족으로 야외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배드민턴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배드민턴코트를 다른 색으로 그려 사용하기도 한다. 아파트의 주차공간은 오전시간과 낮시간 동안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어 있는 공간을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미니골프장(퍼팅장)은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활용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별한 공간을 할당할 필요가 없이 아파트의 조경사업과 함께 코스가 제작될 수 있다. 골프퍼팅장은 18개의 코스를 난이도별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정원수와 화초로 코스주변을 장식한다면, 아파트의 조경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조깅코스는 아파트 단지의 외곽을 일주하는 코스로 디자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지가 큰 경우에는 천천히 뛰어 20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약 2-2.5km)를 조깅코스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깅코스는 일반 산책로와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포장도로가 아닌 흙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흙길을 사용하는 이유는 산책로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조깅으로 인한 무릎과 허리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 단지내에 설치되는 사회체육센터의 이용

미래형 아파트 단지 내에 사회체육센터가 설치된다는 것은 단지의 일부분에 단독건물의 스포츠센터가 설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체육센터는 단지내에 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들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그러므로 사회체육센터는 단지내 주민들과 지역사회주민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화합과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체육센터가 단지내 주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사료된다.

사회체육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지역사회에서 필요로하는 게임이나 스포츠활동을 추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문화창조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교양강좌 혹은 레크레이션과 레저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주민들에게 여유허 공간을 대여하여 모임의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사회체육센터는 두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종류는 영리를 목적으로 시행되

는 사회체육센터로 특정한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시설사용과 프로그램참여의 권리를 주는 사설기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설기관들은 고가의 회원가입비를 요구하므로 일반인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설기관은 지역사회의 연계성이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는 관심이 없으며, 단지 기관이나 단체의 영리추구가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기관은 ‘사회체육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보다는 ‘스포츠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두번째 사회체육센터의 종류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체육센터는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시설사용료가 저렴하고 다양한 체육프로그램개설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많으며, 스포츠활동 이외에도 문화활동이나 지역주민의 유대강화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2)는 사회체육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미래형 아파트에 설치될 사회체육센터는 어떠한 유형을 쫓을 것인가에 관하여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 미래형 아파트에서 추구하는 체육시설은 주민공유공간이라는 복지시설로 간주되어야 한다. 미래형아파트는 다양하고 편리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의 대포급 아파트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아파트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체육센터를 외부의 지역사회주민에게 공개할때, 이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빛나리라고 본다.

영리를 목적으로한 스포츠센터를 설립한다면,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보다 개방되고 변화한 곳에 화려한 모습으로 설치한다면, 스포츠센터로써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는 사회체육센터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주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단지내의 주민들이 외부지역주민으로 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사회체육센터로 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체육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시행된다면, 회원제도가 도입되므로 참여인원이 자연스럽게 한정되어 진다. 한정된 인원이 사회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한다면, 회원 개개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어진다. 많은 이용객이 사용하는 것보다 적은 회원만이 사용하게 되므로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사회체육센터의 참여인원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설은 사라지게 된다. 이용객을 늘리고 회원확장을 위한 홍보전략도 필요없어지므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은 자연적으로 뒷전에 밀리게 되어있다.

(표 2) 사회체육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시설종류	프로그램의 종류
보울링장	개인렛슨, 청소년 및 주부교실 지역주민유대를 위한 대회개최
에어로빅장	청소년프로그램/입시준비반 일반용/경기용에어로빅 강좌 주부교실 가족대상 프로그램(저녁반)
무도실	정규렛슨(태권도, 유도, 검도) 여성 호신술 프로그램 동아리모임 구성
다목적체육관	동아리모임(클럽활동) 장소 유아체능단 실습실
실내골프장	개인렛슨 골프스쿨(정규프로그램) 스크린골프 경기개최 동호인모임구성
수영장	동아리 모임 자유수영 대상자별 정규수업 자격증 취득 강좌 각종 수영대회개최
건강측정실	고혈압, 비만과 운동에 관한 강좌 연령별, 성별 운동처방
라켓스포츠	동호인 모임 대회개최 개인렛슨
실내놀이터	놀이방프로그램 유아체능단 실습 보육원, 놀이방, 유아원의 학습프로그램
암벽등반장	개인, 단체, 동호인 렛슨 트레이너 자격 취득코스 개설 자유등반 등반대회 개최

많은 인원이 사회체육센터에 참여할 수록 운영팀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한

정된 인원만이 시설물을 사용한다면, 프로그램의 개설조차 필요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한정된 인원만이 시설을 이용하므로 시설을 이용한 특별 프로그램은 개설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기다림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 사용료가 적을 수록 많은 이용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해야만 시설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 만아니라, 흑자의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소극적인 대안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성황을 이룰 때, 어머니교실의 회원도 늘게 된다.

또한 어머니의 관심이 높아야 유아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있다. 유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자신의 흥미나 관심 때문에 참여를 결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유아들의 의사결정권은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체육센터는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단지내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사회체육센터의 사용료는 저렴해야 한다. 저렴한 사용료를 받을 수록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채롭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형주택 단지내에 단독결물의 사회체육센터가 설치될 때에는 주민의 득과 실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사용의 편의성만을 주장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설사용의 편리함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래형 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될 사회체육센터의 설립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지역주민(외부주민)들과의 유대관계 향상이나 수익사업과 같은 목적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내에 설립되는 사회체육센터가 일반인에게 분양되거나 위탁에 의하여 경영된다면, 주민들의 편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단지내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

주민들이 사회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혹은 강습비를 최

소한으로 한다.

(2) 사용시간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기종목에 관한 외부인의 시설사용 시간을 제한한다.

(3) 노동력의 보장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에 대하여 주민들의 유효인력을 사용한다. 시설의 관리나 어린이보호, 검표인, 혹은 안내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은 주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특히, 주부 혹은 노인들을 시간급(Part-Time)이나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4) 프로그램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 개설되는 체육프로그램은 주민들 위주로 개설되어야 한다. 센터의 운영방향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정될 경우, 개설되는 프로그램이 외부인 위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성인(남성)을 대상으로한 헬스프로그램이나 골프, 라켓볼교실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리라고 예견되는 사람들은 유아와 아동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두드러진 참여를 보일 수 있는 집단은 주부들이 될 것이다.

(5) 합리적인 시설물 확보

시설물이나 공간배치는 주민의 이용율에 따라 안배되어야 한다. 모든 시설물 설치의 이용자의 숫자에 맞도록 적절히 안배되어야 한다. 가령, 대기업의 직원들을 위해 건설되는 사원아파트가 미래형아파트단지로서 최고의 시설로 지어지는 경우, 실내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과 같은 중년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주민 가운데 장년층과 노년층의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원아파트의 평형이 국민주택규모의 작은 평형이라면, 청소년층이나 장년, 그리고 노년층의 숫자는 당연히 적을 것으로 사료되어 골프나 게이트볼과 같은 체육시설은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3) 지도자의 유치와 활용방안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체육을 전공한

지도자의 유치가 필요하다. 사회체육센터가 개인에 의하여 민용화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유급지도자와 시간급지도자를 적절하여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에게는 인건비라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주민의 공유공간이 아니라 단지내에 사설체육센터가 설립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큰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사회체육센터가 아파트 주민자치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주민들 자치기구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므로 인건비에 관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지도자 유치가 어렵게 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이나 학습효과는 적게 나타날 것이다.

아파트 단지내에 사회체육 시설물이 설치된다면, 이 시설물들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주민들이 책임지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전문적인 사회체육지도자의 고용보다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조직적인 관리와 운영이 없이 시설물들은 방치하게 되면, 체육시설물들은 주민들의 공유공간만을 차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들은 법적인 구속력 때문에 설치되는 되었지만, 그 운영방법이나 활용 프로그램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반드시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는 주민들의 유효인력을 이용한 자원봉사활동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참여는 소극적이고 구속력이 없어 장기적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체육시설물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는 단지내에 설치된 사회체육시설물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자로는 각 구청단위에 소속되어있는 '새오할체육과에 소속되어있는 공무원'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구청에 속해있는 생활체육과 직원들에게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의 체육시설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게 해야한다. 이들에게 사회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주민자치단체 혹은 아파트 관리원들에게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또한 행정구청과 교육구청은 긴밀한 유대를 맺어야 한다. 교육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

의 사회체육 참여를 위하여 체육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교사는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구청에서는 학교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한다면 아파트 단지내에의 열악한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풍부한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설치되어있는 대학생조직을 지역사회체육 발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사회체육학과의 학생들을 지도자-은행(leaders-bank)의 요원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도자-은행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체육 지도자를 무상 또는 최소한의 경비로 고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개개인에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으며, 학교는 지역사회발전에 일조한다는 긍지를 갖게 될 것이다.

3. 결론

미래형 아파트단지의 체육시설물은 주민들의 연령층, 직업종류, 그리고 지역 등의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단순히, 고가의 장비나 유행에 편승한 시설물보다는 현실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스포츠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체육시설물의 선택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시설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는 시설물은 주민의 공유공간만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형 아파트단지의 사회체육은 주민들의 제반여건에 고려한 시설물의 선택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개설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

미래형 아파트단지의 사회체육시설은 주민공유공간으로 설치되는 시설물과 단독건물에 모든 시설을 설치한 사회체육센터로 나눌 수 있다. 주민공유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은 주민들에 의해 관리, 운영될 수 있는 종류들이 권장되는 반면, 사회체육센터의 시설물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혹은 고가의 운영비가 요구되는 스포츠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미래형 아파트단지의 체육시설은 주민공유공간에 설치되는 기본적인 체육시설과 사회체육센터를 단지내에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이는 주민들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내에 설치되는 사회체육센터는 외부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체육센터가 아파트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사회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며,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을 보장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형 아파트단지의 사회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지도자들은 구청단위에 상주하는 생활체육공무원이나 학교체육교사들이 참여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방행정체계와 지방교육체계가 협조적인 활동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협조적인 활동 이외에 지역사회의 대학생을 이용한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지도자-은행 체제(Leader's Bank System)을 이용할 수 있다.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